

#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 전통성에 대한 인식 및 요구되는 전통관련 기초 이론 교육의 내용\*

Cognition of Korean Tradition and the Required Basic Educational Contents Among  
Interior Architect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오혜경\*\*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실내디자인전공

조교수 천진희

Dept. of Housing Studies Major,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 Oh, Hye-Kyung

Dept. of Interior Design, Sang 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un, Jin-He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d the cognition of Korean tradition and the required basic educational contents among interior architects. The survey had been made 277 designers an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vealed that only a half of interior architect have been taught about Korean tradition in university and their level of knowledge is entry level.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education in university on the Korean tradition was not sufficient enough.

Second, it is believed that one ideal way of expressing Korean tradition is re-interpreting traditional motive with modern views and another way is to express abstractly about Korean traditional space arrangement, composition and space concept. It is found that substantial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required to express Korean tradition effectively.

Third, it is found that a lot of interior architect has faced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projects because of not having sufficient knowledge related to Korean tradi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educate basic theory about Korean tradition first and then reinforce the program by including field trip in university curriculum.

Fourth, it is necessary to re-educate to current interior architect because of lacking knowledge about Korean tradition. The recommended area in priority order is traditional interior space, traditional architecture, traditional color, traditional pattern and traditional furniture

---

▲ 주요어(Key Words) : 한국의 전통성(korean tradition), 실무디자이너(interior architect), 전통교육(tradition education)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화시대, 네트워크시대의 도래로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보편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 속에서 정체성을 과소 평가 한 채 살아왔다. 특히 서양에서 발생된 실내환경 분야는 서구적인 논리에서 체계화된 실용학문으로 우리의 혼과 맥을 대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인 도입과 적용이 지속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 본 논문은 2000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 - 00 - 100044

\*\* 주저자 : 오혜경(E-mail: ohk@khu.ac.kr)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된 '한국건축 100년전'의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 건축계의 흐름은 외국 선진국에서 유

행하였던 사조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건축은 1950년 중반에서 1970년까지 서구 근대건축의 모방과 신기술 도입으로 기능성 위주의 모더니즘적 건축이 주조를 이루었고,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으로 한국건축의 지역성 탐구가 일시적으로 건축에 나타났으나 서구적 건축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1980년부터 세기말까지는 다원화의 영향으로 작가 자신의 내면성 표출이 중시된 건축이 비중 있게 보여졌으나 이 역시 서구적 건축사조의 편승에 불과하였다.

서구건축의 지속적인 모방으로는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공간을 창출해낼 수 없다. 그렇다고 서구적인 것이 우리의 정서와 어긋나므로 전통적인 것으로 모두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전통의 복제나 무조건적인 남용이 한국전통성의 도입과 적용이 아니므로 21세기의 가치에 부합되는 전통의 올바른 재해석과 조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성에 비중을 두는 것이 과거를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우리민족의 뿌리에서 발견한 미를 오늘날의 사회가 요구하는 공간과 접목시킬 소재로서 재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의 고유한 풍토와 정신, 종교, 생활문화에서 비롯된 차별화 된 정체성에 기초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간이 풍부하게 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 종사자들의 역할이 지대하다. 즉 이들의 한국전통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설계의 방향을 설정할 때나 그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실내 환경 분야는 어느 학문보다 대학의 전문교육을 받은 많은 인력이 산업계로 진출하는 만큼 대학에서의 한국전통성에 관한 기초 이론 교육이 충실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전문성은 그 방향을 확고히 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국제경쟁력은 낮아질 것이다.

실제 전통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계에서는 전통성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술이 축적되지 않아 국제 경쟁력이 낮다고 한다. 현재 국내 프로젝트 중 한국의 전통성을 모티브로 하여 설계된 국내 특급호텔이나 그 외 공간의 기본 설계의 경우,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며 국외 업체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내업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제도 지적 자산의 축적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통관련 기초이론 교육을 교육계가 담당하여 산업현장에서 전통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나 국제적으로 경쟁 가능성이 있는 실무자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로 현재 관련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 담당 종사자들이 대학에서 축적한 한국전통 관련지식과 이의 적용 내용 등을 다각도로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에서 한국전통성 관련 기초 이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한편 실제적으로 교육과 실무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기초 이론교육에서 우선 순위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화 시대에 한국의 실내 환경 분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성에 기초한 교육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명제 하에 산업현장의 실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 전통성에 관한 전반적인 인지도와 학습방법 그리고 전통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는 진행해 보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진행한다면 느끼게 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전통관련 이론교육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전통성에 관한 인지도 및 학습방법을 파악한다.
- (2)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전통성 관련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전통성 교육에 관한 견해를 파악한다.
- (3)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실무 종사자들의 프로젝트 결과와 이에 필요한 기초이론교육의 내용을 파악한다.
- (4)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 전통성 기초이론에 관한 보충교육의 필요도 및 내용을 파악한다.

## II. 연구의 방법

###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장공사협의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 기사 이상의 직원으로 가능한 한 남녀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였고 학력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한정하여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주임~과장급의 실무 종사자 5인을 대상으로 1차의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수정하여 2001년 6월 25일~7월 10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40부를 배부하여 285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부실 기재된 9부를 제외하고 총 277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설문문의 내용 및 분석방법

설문은 먼저 조사의 대상자가 관련업계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으므로 학생이나 일반 주부보다 정확한 응답을 할 것이라 판단하여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하였으며 설문문의 내용은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없어 연구자 2인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문문의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교수 2인의 자문을

언어 확정하였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

이에 관한 사항은 조사대상자의 성별, 교육수준, 전공, 실무 경력 연수, 직급을 포함하고 있다.

2)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전통성에 관한 인지도 및 학습 방법

이에 관한 사항은 한국인의 조형의식이 서양인의 그것과 다른 점에 대한 인지도, 한국전통성의 근원인 환경적 배경에 대한 인지도, 한국과 유사 문화권 나라(중국, 일본 등)의 전통성의 차이점에 대한 인지도, 위에 열거한 지식의 학습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전통성 관련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전통성 교육에 관한 견해

이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통성 관련 프로젝트 참여 여부,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실무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재학 당시 학습한 한국전통성에 관한 이론의 충분도, 한국전통성에 관한 지식의 보충 방법, 그리고 참여한 경험이 없는 실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전통성을 테마로 하지 않은 이유, 한국전통성을 테마로 디자인한다면 재학 당시 학습한 한국전통성에 관한 이론의 충분도, 한국전통성에 관한 지식의 보충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실무 종사자들의 프로젝트 결과와 이에 필요한 기초이론교육의 내용

이에 관한 사항은 진행하였던 프로젝트에서 한국전통성 표현의 만족도, 그리고 한국전통성 표현의 문제 해결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

5)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전통성기초이론에 관한 보충교육의 필요도 및 내용

이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통성에 관한 보충교육의 필요도, 유사 문화권 나라의 전통성에 관한 견해, 한국전통성의 구체적 내용(전통건축, 전통실내공간, 전통가구, 전통문양, 전통색채)에 관한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설문 자료의 분석은 SAS package for window V 6.12로 단순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III. 조사의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표1>을 보면, 성별은 여자(52.3%)가 남자(47.7%)보다 약간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54.7%) 전문대 졸업 이하가 25.6%였으며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18.8%가 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132	(47.7)
	여	145	(52.3)
	계	277	(100)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하	74	(25.6)
	대졸	151	(54.7)
	대학원졸 이상	52	18.8)
	계	277	(100)
전공	건축	53	(19.1)
	실내디자인	128	(46.2)
	산업디자인	33	(11.9)
	주거학	15	(5.4)
	기타	48	(7.3)
	계	277	(100)
실무경력	1년이하	71	(25.6)
	2-5년 미만	84	(30.3)
	5-10년 미만	85	(30.7)
	10년 이상	37	(13.4)
	계	277	(100)
직급	기사	92	(33.2)
	주임·대리급	72	26.0)
	과장·차장급	52	(18.8)
	실장급	40	(14.4)
	기타	21	(7.6)
	계	277	(100)

조사대상자의 전공을 보면 실내디자인이 46.2%, 건축이 19.1%, 주거학이 5.4%였고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도 상당수 되었다. 실무경력은 1년 이하가 25.6%였고 2~5년 미만과 5~10년 미만이 각각 30%를 약간 넘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13.4%가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직급을 보면 기사급이 제일 많아 33.5%였고 그 다음이 주임·대리급, 과장·차장급, 실장급의 순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수가 약간씩 적어지고 있었다.

2.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 전통성에 관한 인지 및 학습 방법

1) 한국 전통성에 관한 인지

한국 전통성에 관한 인지<표2>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미의식 또는 조형의식이 서양인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있는지 설문해 본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11.2%로 적은 반면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사람이 77.6%로 나타나 한국 전통성에 대한 스스로의 지식에 자신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었고 더욱이 모른다는 사람도 11.2%나 됨으로써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한국전통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전통 미의식이 서양인과 다르게 형성된 배경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가 8.7%,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82.2%, 모른다가 9.1%로 이 또한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 전통성에 관한 인지

변인	구분	빈도(%)
서양인과 다른 한국인의 조형의식	잘 알고 있다	31 (11.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14 (77.6)
	모른다	31 (11.2)
	계	276 (100)
한국 전통성의 근원인 환경적 배경	잘 알고 있다	24 (8.7)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27 (82.2)
	모른다	25 (9.1)
	계	276 (100)
유사문화권 나라의 전통성과 차이점	잘 알고 있다	10 (3.6)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05 (74.3)
	모른다	61 (22.1)
	계	276 (100)

한편 한국의 전통성이 일본이나 중국 등 유사 문화권의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사람이 74.3%로 높았으나 모른다는 사람이 22.1%로 앞의 설문의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또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3.6%로 매우 낮게 나타남으로써 유사문화권 나라와 우리 나라의 전통성의 차이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의 전통성이 유사문화권인 일본이나 중국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이 국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견지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육의 내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2) 한국 전통성에 관한 지식의 학습방법과 관련 변인별 차이 분석

실무 종사자들이 한국 전통성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였는지를 설문해 본 결과, 대학에서 습득한 경우가 5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양서적을 통해서(24.2%), 매스컴이나 강연을 통해서(15.9%)의 순으로 밝혀졌다 <표3>.

<표 3> 한국 전통성에 관한 지식의 학습방법

변인	구분	빈도(%)
학습방법	대학	144 (52.0)
	매스컴, 강연	44 (15.9)
	교양서적	67 (24.2)
	기타	22 (7.9)
	계	277 (100)

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학습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학력을 보면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학의 교과목 외에 매스컴·강연, 혹은 교양서적을 통해서 학습한 비율이 많은 대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대학의 교과목을 통해서 학습한 비율이 월등 높게 나타나서 대조가 되고 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습방법과의 교차 분석<sup>a</sup>

일반적 특성		학습방법				계
		대학 교과목	매스컴 강연	교양 서적	기타	
학 력	전문대졸	27(36.99)	20(27.40)	20(27.40)	6(8.22)	73(100)
	대졸	94(62.25)	17(11.26)	28(18.54)	12(7.95)	151(100)
	대학원졸	23(44.23)	7(13.46)	18(34.62)	4(7.67)	52(100)
	계	144(52.17)	44(15.94)	66(23.91)	22(7.97)	276(100)
	$\chi^2$	19.78**				
전 공	건축	25(47.17)	8(15.09)	16(30.19)	4 (7.55)	53(100)
	실내디자인	76(59.38)	22(17.19)	24(18.75)	6 (4.69)	128(100)
	산업디자인	12(36.36)	2 (6.06)	14(42.42)	5(15.15)	33(100)
	주거	12(80.00)	1 (6.67)	1 (6.67)	1 (6.67)	15(100)
	기타	19(39.58)	11(22.92)	12(25.00)	6(12.50)	48(100)
	계	144(51.99)	44(15.88)	67(24.19)	22(7.94)	277(100)
$\chi^2$	25.25*					
성 별	남	62(46.97)	18(13.64)	42(31.82)	10(7.58)	132(100)
	여	82(56.55)	26(17.93)	25(17.24)	12(8.28)	145(100)
	계	144(51.99)	44(15.88)	67(24.19)	22(7.94)	277(100)
	$\chi^2$	8.14*				

\* p<0.05, \*\* p<0.01

<sup>a</sup>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을 정리한 것임

다음 전공을 보면 주거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학에서 학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내디자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건축이나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즉 산업디자인은 대학에서 학습한 비율보다는 교양서적을 통해서 학습한 비율이 높고 건축은 이보다 낮은 하나 역시 교양서적을 통해서 학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 보면 남자가 교양서적을 통해서 학습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여자는 매스컴·강연과 교양서적을 통해서 학습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 전통성 관련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전통성 교육에 관한 견해

1) 한국 전통성 관련 프로젝트 참여 여부

<표 5> 한국 전통성 관련 프로젝트 참여 여부

변인	구분	빈도(%)
한국 전통성 관련 프로젝트 참여 경험	있다	116 (41.9)
	없다	161 (58.1)
	계	277 (100)

실무 종사자들이 한국 전통성을 테마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41.9%가 참여하였고 58.1%는 참여 한 적이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전통성을 테마로 한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는 통념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한국 전통관련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6>,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실무경력과 전공으로 밝혀졌다. 즉 실무경력이 많을수록 한국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대략 실무 경력 5~10년을 분기점으로 그 이하로 갈수록 적게 또 그 이상이 되면 경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공도 한국성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유의하였는데 건축을 전공한 사람과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은 한국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가 평균 41.88%보다 많았고 실내디자인과 주거학을 전공한 사람은 평균보다 적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한국 전통성 관련 프로젝트 경험 有·無에 관한 교차분석<sup>b</sup>

일반적 특성		프로젝트 경험				계
		有		無		
실무 경력	2년이하	18	(25.35)	53	(74.65)	71 (100)
	2-5년이하	33	(39.29)	51	(60.71)	84 (100)
	5-10 이하	42	(49.41)	43	(50.59)	85 (100)
	10년 이상	23	(62.16)	14	(37.84)	37 (100)
	계	116	(41.88)	161	(58.12)	277 (100)
χ <sup>2</sup>		16.44***				
전공	건축	28	(52.88)	25	(47.17)	53 (100)
	실내디자인	43	(33.59)	85	(66.41)	128 (100)
	산업디자인	20	(60.61)	13	(39.39)	33 (100)
	주거	5	(33.33)	10	(66.67)	15 (100)
	기타	20	(41.67)	28	(58.33)	48 (100)
	계	116	(41.88)	161	(58.12)	277 (100)
χ <sup>2</sup>		11.43*				

\*p<0.05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sup>b</sup>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만을 정리한 것임

2) 한국 전통성교육에 관한 견해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 전통성교육에 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견해 <표 7>를 보면, 한국 전통성에 대해 대학에서 배운 이론의 양과 질이 한국을 테마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매우 충분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0.9%(1명)뿐이었고 어느 정도 충분하였던 사람은 17.2%인 반면에 불충분(81.9%)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밝혀짐으로써 한국 전통성에 관한 학교교육의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전통성에 관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 41.88%나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경력이 짧아 지금까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경력이 쌓여갈수록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많은 수의 실무 종사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한국 전통성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표 7> 참여 경험이 있는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 전통성 교육에 관한 견해

변인	구분	빈도(%)
대학에서의 기초 이론 교육	매우 충분하다	1 (0.9)
	어느정도 충분하다	20 (17.2)
	불충분하다	95 (81.9)
	계	116 (100)
한국 전통성에 관한 지식의 습득	참고도서 및 인터넷	88 (67.2)
	유적이나 유물답사	37 (28.2)
	상식	6 (4.6)
	계	누적 빈도 131(n=158)

실무 종사자들은 부족한 한국 전통성에 관한 지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습득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해당되는 대로 표하게 하였다니 스스로 참고도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결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67.2%) 실제 유적이나 유물을 답사하는 등 실물을 공부한 사람도 28.2%가 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에서 해결한 사람들(4.6%)도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무 종사자들은 한국 전통성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스로의 지식에 한계를 느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참여 경험이 없는 실무 종사자에게 한국전통성을 테마로 디자인해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문해 보았더니 <표 8> 프로젝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93.7%를 차지함으로써 대부분 기회의 부족을 꼽았다. 이를 역으로 풀어보면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도전해 보고 싶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표 8> 참여 경험이 없는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 전통성 교육에 관한 견해

변인	구분	빈도(%)
경험이 없는 이유	프로젝트의 기회 無	148 (93.7)
	지식부족과 자신감 부족	4 (2.5)
	현대적이고 서구적 디자인이 급선무	4 (2.5)
	너무 어려워 중간에 테마 수정	2 (1.3)
	계	158 (100)
대학에서의 기초이론교육	매우 충분하다	1 (0.6)
	어느정도 충분하다	22 (13.9)
	불충분하다	135 (85.5)
	계	158 (100)
한국전통성에 관한 지식의 보충방법	참고도서 및 인터넷	84 (34.2)
	유적이나 유물답사	74 (30.0)
	특별강좌나 재교육	84 (34.2)
	기타	4 (1.6)
	계	누적빈도 246(n=158)

한편 향후 담당할 프로젝트에서 한국전통성을 테마로 다룬다면 아이디어 발상과 디자인적 접근을 위해 본인이 알고 있는 이론의 양과 질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설문해 본 결과 충분하지 않다가 85.5% 차지함으로써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실무 종사자들이 전통성에 대한 이론지식의 불충분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한국전통성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식을 보충할 것인가를 있는 대로 고르게 하였더니 스스로 참고도서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지식을 보충하거나 특별 강좌나 재교육이 있다면 이를 수강하겠다는 각각 34.2%로 그 수가 같았고, 전통건축이나 미술품 등을 답사하여 지식을 보충하겠다는 30.0%여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전통성에 관한 공부는 다양하게 각 방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 4. 참여 경험이 있는 실무 종사자들의 프로젝트 결과와 이에 필요한 기초이론교육의 내용

실무 종사자들이 한국 전통성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한국 전통성이 잘 표현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더니 <표 9> 매우 잘 표현되었다고 만족한 사람(4.3%)보다 약간 표현되었다는 사람(74.1%)이 월등히 많았고 표현되지 않았다는 사람(19.0%)도 상당수 되었으며 전혀 표현되지 않았다는 사람(2.6%)도 있었다. 여기에서 약간 표현되었다는 판단을 스스로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본다면 결국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한국 전통성 관련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9> 한국전통성 표현의 만족도

변인	구분	빈도(%)	
한국전통성 표현의 만족도	매우 잘 표현됨	5	(4.3)
	어느 정도 표현됨	86	(74.1)
	표현되지 않음	25	(21.6)
	계	116	(100)

한편 프로젝트의 결과에 한국 전통성이 잘 표현되었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적어달라고 하였더니 총 42인이 답하였다. 그 중 부실하게 되었다고 판단된 5부를 제외하고 총 37인의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3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자료를 조사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고 이를 토대로 전통성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도 토론과 보충이 필요한 자료 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그룹으로 15인이 응답하였다. 그 중에는 해당분야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도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답사를 하여 프로젝트에 접근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부분 만족한 편'이라거나 '대중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친근감 또한 높았다'. '한국전통성의 재해석으로 인해 새로운 느낌, 의도의 결과물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자신의 프로젝트 결과에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전통적 모티브를 찾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이를 재해석하여 현대화시켰다는 그룹으로 13인이 해당되었다. 이들이 주제로 삼은 요소는 전통문양이나 색채, 담장, 연, 창호 등으로 이를 재해석 내지는 현대화하는 과정 후에 결과물이 도출되었다고 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 두 사람은 전통적 모티브만을 가지고 현대화시키는 작업은 그 범위가 좁아 부담 없이 진행시킬 수 있으나 미진한 그 무엇이 남는다고 하였다. 이는 전통에서의 보다 근원적인 공간개념이나 공간의 배치 및 구성 등을 추상화하는 작업에 대한 실험적 접근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일부 실무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눈으로 보이는 한국의 전통적 모티브를 주제로 삼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한국적 숲과 토양의 형상, 공간의 배치 및 구성, 공간 개념 등 보다 근본적인 디자인의 원천을 찾아 이를 추상화하여 표현하였다는 그룹으로 9인이 응답하였다. 이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한국전통성을 어느 특정한 모티브를 주제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한데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나 '공간개념만으로 한국 전통성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론적이라 일반인이 전통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다', '너무 현대적인 느낌이 나서 생각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결과에 한국전통성이 잘 표현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적어 달라고 하였더니 총 55인이 답하였다. 그 중 부실 기재된 3부를 제외하고 총 52인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4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전통의 일부만을 답습 또는 모방하는 차원이었다는 그룹으로 24인이 답하였다. 이들의 주제는 전통건축의 일부, 창호의 살, 문양, 색채, 가구, 도자기 등으로 이를 차용하여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표면적 이미지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나 한국전통성의 기본을 알지 못하고 단순한 요소들만을 나열한 만족스럽지 못한 프로젝트'이라거나 '심도 깊은 접근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포장을 했다는 느낌'이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전통의 재해석이나 현대화의 접목에서 실패하였다는 그룹으로 총 8인이 답하였다. 이들은 우선 한국의 전통성을 재해석하거나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데 있어 '전통의 현대화된 모델을 찾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방황하였고 결과도 만족하지 못함', '전통 공간의 성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제 적용하였을 때 잘 표현되지 않았음', '한국적인 절제된 선의 미학을 표현하고 싶었으나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와 대비되는 적정선을 찾아 결정, 적용하기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전통에 대한 지식 및 참고자료가 부족하여 그 결과물이 부실하게 나타났다는 그룹으로 총 15인이 답하였다. 이는 프로젝트의 결과에 한국 전통성이 잘 표현되었다고 답한 첫 번째 그룹과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기술한 내

용을 보면, '시간이 급급해 수박 겉핥기 식의 지식습득', '기초이론의 습득 없이 막연한 디자인의 전개', '한국 전통성에 대한 지식부족, 자료부족, 능력부족' 등으로 이 역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전통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함을 충분히 느낀 결과라 하겠다.

네번째는 한국 전통성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룹으로 총 5인이 답하였다. 즉 클라이언트의 무관심과 이해부족, 시공방법에서의 무리함, 예산의 촉박함 등으로 만족할 만한 공간을 끌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를 시작할때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겠으나 특히 한국 전통성을 주제로 삼거나 부제로 표현하려면 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의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토대하에 좋은 공간이 탄생될 수 있다 하겠다.

한편 이들 4 그룹 중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마지막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전통성을 잘 표현하려면 그 해결방안으로 좋은 참고자료와 이에 대한 공부 수반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지적을 하고 있었다. 그 첫번째가 전통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공부 이전에 한국역사는 물론 한국적인 지형학, 철학, 사상, 종교, 문화 등 보다 근본적인 이론에 대한 공부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전통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공부 및 현장답사로 디자인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번째는 전통공간의 원리와 연출기법에 대한 다양한 예가 제시되었으면 계획의 방향을 잡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는 실질적인 표현방법에 대한 것이었고, 네번째는 전통에 관한 전문서적 및 자료의 집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공부를 하고자 할 때 바로 필요한 참고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실무 종사자들은 한국성을 표현함에 있어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답습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고 적어도 전통적 모티브를 찾아 현대화 또는 은유화 시키거나 보다 근원적인 전통사상, 공간개념 등을 대입시켜 추상화시키는 것에 공지를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성에 대한 이론교육은 전통을 현대화, 추상화시키는 방법과 실제 프로젝트에서의 해결방법 등에 대한 예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실무 종사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 될 것이므로 특히 강조해서 교육해야 한다.

5.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 전통성에 관한 보충교육의 필요도 및 내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 종사자들에게 한국 전통성에 관한 보충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에서 거의 대부분 '매우 필요하다'(47.5%)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52.2%)라고 답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표 10>

<표 10> 한국 전통성에 대한 보충교육의 필요도

변인	구분	빈도(%)
한국전통성에 대한 보충교육의 필요도	매우 필요하다	131 (47.5)
	어느 정도 필요하다	144 (52.2)
	필요 없다	1 (0.3)
계		276 (100)
유사문화권의 전통성에 대한 보충교육의 필요도	매우 필요하다	85 (30.8)
	어느 정도 필요하다	183 (66.3)
	필요 없다	8 (2.9)
계		276 (100)

이들은 경력에 있어 2~5년이 30.4%, 5~10년이 30.8% 그리고 10년 이상된 사람도 13.4%가 되어 대부분 상당기간 실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유사 문화권 나라의 전통성에 관한 보충교육의 필요성도 매우 호응도가 높아(97.1%) 우리의 전통성이 유사문화권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보고자하는 욕구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공간이 일본이나 중국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이고 이들과 다른 우리만의 공간을 위해서는 그들의 공간 특성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는 결과라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전통성을 세분하여 그 필요성의 정도를 설문해 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전체를 보면 세분된 내용 모두 필요 없다 보다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 하다는 답변 비율이 월등 높아 이에 관한 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한국 전통성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보충교육의 필요도

변인	구분	빈도(%)
전통건축	매우 필요하다	150 (54.3)
	어느 정도 필요하다	124 (44.9)
	필요 없다	2 (0.8)
계		276 (100)
전통실내공간	매우 필요하다	152 (55.1)
	어느 정도 필요하다	122 (44.1)
	필요 없다	2 (0.8)
계		276 (100)
전통가구	매우 필요하다	85 (30.8)
	어느 정도 필요하다	183 (66.3)
	필요 없다	8 (2.9)
계		276 (100)
전통문양	매우 필요하다	117 (42.3)
	어느 정도 필요하다	155 (56.2)
	필요 없다	4 (1.5)
계		276 (100)
전통색채	매우 필요하다	144 (52.2)
	어느 정도 필요하다	128 (46.3)
	필요 없다	4 (1.5)
계		276 (100)

이 중 전통건축과 전통 실내 공간 그리고 전통 색채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보다 높아 거의 대부분의 실무 종사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 가구, 전통문양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많아 그 요구가 위에 세 항목보다 강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에서 한국 전통성에 관한 이론교육을 실시 할 경우 그 내용에 있어 위의 조사결과를 참조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특히 이를 위한 교과목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여건이 되지 않는 대학에서는 과목내용의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 참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가구나 전통문양 또한 실무 종사자로서는 필히 알아야 할 우리의 귀중한 유산이므로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진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실내건축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277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성에 대한 인식 및 요구되는 전통관련 기초이론 교육의 내용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그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 전통성에 관한 인지도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잘 알고 있지는 못함으로서 한국의 전통성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나 일본 등 유사 문화권 나라의 전통성과 한국의 전통성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독창성이 세계 속에서 빛나려면 서양은 물론 유사 문화권 나라와 구별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이 대학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실무 종사자들을 위한 보충 교육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실무 종사자들의 한국 전통성 교육에 관한 의견은 대학에서 배운 한국전통성 관련 지식의 내용이 충분치 않아 참고 도서·인터넷 등을 통하여 또는 답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족한 지식을 습득한 후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지만 그 결과에는 스스로 만족치 못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보다 심도 있는 한국 전통성 기초이론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기초이론 교육에는 한국의 지형 및 기후 그리고 한국적인 사상, 종교, 문화 등의 이론교육이 필히 수반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유물이나 유적답사 등으로 전통성을 확인하는 적극적인 학습 또한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실무 종사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전통성의 표현 방법은 전통적 모티브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재해석하여 현대화시키는 방법과 전통적 모티브가 아닌 한국적 숲과 토양의 형상, 공간의 배치 및 구성, 공간개념 등 보다 근본적인

디자인의 원천을 추상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잘 표현하려면 한국 전통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자료조사가 수반되어야 가능해진다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한국의 전통성을 어떻게 현대화시키고 추상화시킬 수 있는지 그 실례와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실무 종사자들이 언제든지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이며 또한 자신 있게 해결해야 공지를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실무 종사자들은 한국 전통성에 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므로 보충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전통실내공간, 전통건축, 전통색채, 전통문양, 전통가구의 순이었다. 따라서 대학에서 한국전통성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위의 우선 순위를 참고하여 시간을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가능한 한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어 줌으로서 한국 전통성에 관해 다방면에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접수 일 : 2002년 3월 07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6월 12일

#### 【참 고 문 헌】

- 김경숙(1996).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연속성과 공간디자인에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원(1987). 한국 전통주택의 내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기(1991).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 김화봉(1989).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현상학적 지각체험에 관한 연구. 건축과 환경. 1989년 4월. 126-129.
- 나채화(1985). 한국 전통건축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 기호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언근(1984). 한국 전통주택의 구성법 - 공간의 경제선과 개구부, 공간.
- 박영순외 공저(1998).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 이종업(1995). 한국 실내 건축에서 전통성 고찰과 수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덕훈(1986).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축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진희·오혜경(2001). 한국전통성에 기초한 국내대학 교육현황과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호, 76-85.
- 최성자(1995). 한국의 멋·맛·소리. 해안.
- 최성자(1993). 한국의 미·선·색·형. 지식산업사.